

# 수성이나 설욕이나 2년만에 '리턴매치'

## ■ 장성군수 입지자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이청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예초 민주당 경선 후보 2~3명이 거론됐지만, 김양수 전 전남도공무원연수원장으로 후보가 단일화됨으로써 사실상 이 군수와 김 전 원장이 2년 만에 다시 군수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군수 후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으로, 지난 2008년 재·보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이 군수는 현재 공식적인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국가개발 촉진지구 승인, 농어촌 뉴타운과 행복마을 조성 등 대

## 이청 군수 현장방문 등 재선 발걸음 분주 김양수씨 '후보 단일화 성공' 설욕 베풀

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자립형 도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인기 중성파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나노·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홍길동 문화 콘텐츠 사업과 오디·복분자 등 특화 작목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과 부자 농촌 건설도 인기 중성파로 꼽힌다.

이 군수는 지난 2년여 동안 유치한 대형 국비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민선 5기에도 든든한 중앙정부의 인맥을 갖고 일관 되게 장성 발전을 주도할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다양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재선 도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는 "입지 중 장성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동력을 확보하고 군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이룩했다"면서 "앞으로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과 도시가스 및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관광산업 육성을 비롯한 탄소 제로의 청정 녹색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 군수에게 석패한 김 전 원장은 '와신상담'하며 설욕을 준비 중이다. 최근

## ■ 장성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양수(60) 민주당 / 이청(53) 무소속

정창욱 도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이 큰 힘이다.

김 전 원장은 30년 공직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직 경험이 없는 이 군수와와의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난 76년 장성 남면사무소 7급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원장은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무안 부군수, 전남도 행정혁신국장, 전남지사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지역 곳곳을 누

비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군수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설욕'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정통 행정가·베테랑 행정가를 자임하고 있다.

30여 년간의 공직경험을 고향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다. 공직사회에서는 업무 추진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을 두루 갖춘 공직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장성군정 운영 책임을 또다시 설익은 아마추어 리더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군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파행과 폐해로 얼룩진 군정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장성에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활기찬 장성을 만들어 군민과 후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 지방선거 핫코너

### "인천 자동차경주장 재고해 달라"

차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에 전화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국제 자동차 경기장 건립 계획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복 투자로 인한 국력 낭비와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2010 F1 자동차경주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시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자동차 경주장 관련 제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인천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또 조만간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동차경주장 건설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에도 건의키로 했다.

### 전갑길 구청장 '최우수 단체장상'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26일 '정치 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광주·전남 유권자연합'(이하 광주·전남 유권자연합)으로부터 최우수 단체장 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 유권자연합은 "2009 광주전남지역 우수 자치단체와 기초·광역의원 평가" 결과 다양한 정책의 조화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낸 점이 돋보인 전갑길 구청장을 최우수 단체장 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 탁인석씨 내일 출판기념회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탁인석 전 광주시교육위원이 29일 오후 3시 광주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역사, 미래 그리고 교육'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탁 전 교육위원은 이 책에 교수와 학장, 교육위원 등을 지내면서 느낀 광주교육의 발전 방향과 공교육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았다.

### 김영수씨 "광주시교육감 출마"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이 27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구 상무지구 교육발전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의 새로운 출구를 찾고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삼도초교 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평생교육발전연합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권일·김지을·박진표기자 dok2000@

## ①민주당 vs 부부군수 혈전 예고

## ②제 3의 후보 등장 가능성은?

### ■ 쟁점 & 변수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 '부부군수'와의 한바탕 혈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 두 차례 계속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단일화라는 '필승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군수 측의 군정 성과나 지지기반도 녹록지 않아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직력으로 무장한 무소속 유두석 전 군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석패했다. 이어 2년 만에 유 전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고,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또 한번 민주당은 기회를 잡았지만, 유 전 군수의 부인 이청 현 군수에게 접전 끝에 패배하는 아픔을 맛봤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예초 2~3명의 민주당 군수 후보군이 조기에 단일화를 한 것도 나름대로 경선에 힘을 빼지않고 본선에서 현 군수를 꺾는데 주력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물론 변수는 있다. 민주당 군수 후보군이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단일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앙당의 공천지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물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군수에 만만치는 않다. 이 군수는 2년여 재임기간 동안 건설교통부 국장 출신인 남면 유 전 군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지원을 끌어오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군수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데다 장성의 주요 연령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지도 이 군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점도 선거에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1선거구 '나홀로'... 2선거구 5명 경합 현역 도의원 VS 정치신인 한판 승부

### ■ 도의원 입지자

장성군 도의원 선거구는 2곳이다. 현재까지 1선거구는 '나 홀로' 출마, 2선거구는 5명이 경합하고 있다. 현역 도의원이 둘 다 출마표를 던진 상황에서 기존 인물 대 신인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 1선거구(장성읍·서삼·북·북이·북하)는 현재 윤시석 현 전남도 의원이 '재선'도전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지 다른 입지자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은 선거 막판 무소속 후보의 '깜짝'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2선거구(황룡·진원·남·동화·삼계·삼서)에는 민주당에서 4명, 무소속으로 1명이 뛰고 있다. 민주당 후보간의 공천경쟁이 뜨거울 수 밖에

### ■ 장성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윤시석(48·민)	전남도의원
	김한중(56·민)	전남도 생활체육회 고문
2	이석재(46·민)	민주당 전남도당 농업경제정책팀 특별부위원장
	이태신(51·민)	전 전남도의원
	임강현(47·무)	장성군 농정발전기획단위원
	정창욱(58·민)	전남도의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초 군수 출마 계획이었던 정창욱 도의원이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에 군수 후보를 양보한 뒤 다시 도의원 출마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 도의원은 민주당 군수 후보 단일화를 수락한 만큼 큰 무리 없이 공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장성 토박이로 전남도 민원실장, 도의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3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한중 전남도생활체육회 고문과

이석재 민주당 전남도당 농업경제정책팀 특별부위원장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김 고문은 전남생활체육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체육단체 등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는 평이다. 김 고문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지역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위해 도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성 연락사 자문위원으로 이낙연 의원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다.

이태신 전 도의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 임강현 장성군 농정발전기획단 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목표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2010년도 제18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전복지가족부 위탁 교육기관  
www.bk21.or.kr, www.bk21.ac.kr, www.bk21.net

대상: 1학제 초등교사  
본원: 1학제 초등교사  
본원: 1학제 초등교사

모집처: 보육교사교육원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1,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